

감사의 글

지난 2005년 12월 6일, 한국여성재단 6주년 창립 기념식 및 후원행사에 참석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각계의 송년행사들로 분주한 12월의 일정 속에서 영하의 기온과 행사장을 둘러싼 여러 불편까지 감수하며 참석해주신 자리인지라 더욱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

변화에 대한 요구와 또 이에 부응하는 술한 기획들로 어지러운 때에,
한결같이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풍경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갑니다.

지난 6년 동안,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이라는 이름의 힘없는 이혼의 친구로서 우정을 더해왔습니다. 이들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늘 저희와 뜻을 함께 해주신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, 본래의 미션인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 건설에 대한 비전은 더욱 강화되었고, 또 해마다 크게 고무되어 왔습니다.

부지런히 달려왔고 또 작고 큰 성과들도 많았습니다.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여전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. 하오니, 저희 한국여성재단이 지금의 소명을 잊지 않고 더 훌륭하게 성취해낼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언제나 동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, 선생님의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2005년 12월 10일

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

박영숙